



야마니 前사우디 석유장관 다시 세계석유무대에 등장

지난 86년 10월 유가폭락의 책임을 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직을 물러나 그동안 제네바저택에서 칩거중이던 야마니가 3년만에 다시 세계석유무대에 등장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야마니는 런던에 에너지연구소를 창설, 내년 1월15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재개한다.

야마니가 그의 활동무대를 런던으로 택한 것은 ①제네바는 신분안전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정보센터로서는 불충분하고, ②보스톤은 신분안전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얘기는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86년 10월 국제유가의 대폭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우디의 국가이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OPEC의 總意를 따를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서 결국 야마니는 오랫동안 국제석유시장에 군림하던 사우디석유장관직을 사임하고 말았다. 그후 스위스의 제네바저택에서 그의 재기의 날을 기다리기 3년만에 숙원의 「2000년 석유에너지전략」을 마무리지었다.

CGES(Center of Global Energy Studies)라는 이름의 상설연구기관이 바로 그것으로 BP(브리티시 퍼트roleum), 로얄더치셸등과의 지원체제도 구축해놓고 있다. 야마니가 사재로 설립한 이 연구소의 소장에는 OPEC 시대의 친구인 이라크 출신의 샤라비 前OPEC사무총장대행이 취임하기로 되어 있다. 주요간부들은 BP출신들이 참여한다.

그러면 야마니가 이 연구소개설을 통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야마니는 지난 86년 사임직전까지 OPEC의 장기전

략구상을 추진, 오는 1992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그는 사임직전인 1986년 9월 하바드대학 창립350주년기념식전에서 「석유시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최후의 강연을 했는데, 결국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퇴임하고 만 것이다. 그는 그 강연에서 '86~'92년의 국제원유가격을 배럴당 18달러 수준으로 안정시킬 것을 제의한 바 있는데, 현재 국제유가는 거의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OPEC의 시장점유율회복에 대해서도 그는 국제석유시황이 최악을 기록했던 1985년의 32%에서 서서히 회복하여 오는 1992년까지 46%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 그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다.

OPEC로서는 일단 사태가 호전되고 있는듯이 보이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야마니가 물러난 이후의 OPEC는 생산할당문제로 심각한 내부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리더不在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의 OPEC총회도 결국 90년대의 OPEC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그러면 「2000년의 석유·에너지문제」에 대한 야마니의 처방전은 무엇인가. 그의 측근은 장기적인 문제, 즉 ①석유수급과 석유시장의 안정, ②원유가격의 적정수준, ③원자력 및 대체에너지문제, ④산유국과 소비국의 대화촉진, ⑤환경문제, ⑥美소양국의 석유정세 및 東歐의 에너지위기등 광범한 문제를 망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OPEC와 非OPEC의 입장을 초월하여 산유국과 소비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소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

〈김건흠 편집인〉